

구자영 SK에너지 사장 복지시설 봉사

구자영 SK에너지 사장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일일 제빵 요리사로 변신했다.



구자영 사장은 6월16일 사회복지시설 은평의 마을에서 임직원 자원봉사자, 복지시설의 장애인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빵 굽기 등 제빵 요리사 활동과 시설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.

구자영 사장과 임직원 자원봉사자, 시설 생활인들은 갓 구운 빵을 함께 시식하고,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훈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.

또한 시설 생활인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, 탈수기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도 기증했다.

구자영 사장은 “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느낌이 든다”며, “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행복을 나눌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9/06/17>